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⑨ 천수경 ②



▶한줄 요약
〈천수경〉은 깨달음에 대한 서원과 깨달은 이후 지옥으로 나아가 지옥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깨달아 지옥 가겠다’는 서원 담다

세 번째 이야기–무엇을 빌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빠릅니다. ‘빨리 빨리’가 입에 붙었고, 몸에도 붙었고, 생각에도 붙어 있습니다. 뭘 해도 빨리 해야 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내 차례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빨라야 합니다. 친구가 말하더군요. 국제전화에 국가번호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번호도 ‘82’라고요. 국제적으로도 빠른 대한민국을 인정받은 건가 싶습니다.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빨라서 힘든 점도 많습니다. 많이 지치고, 빨리 지칩니다. 그런데 빨리 지친 친구에게 우리는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어서 힘내, 빨리 기운 차려”라고요. 어때요? 진짜 ‘빨리 민족’답지요?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천수경〉도 어지간히 빨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빨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어 조(早)와 속(速)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조속히 하겠다는 것일까요? 일단 한문문장으로 만나보지요.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승반야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계정도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등원적산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圓寂山)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회무위사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동법성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위대한 연민(대비)을 품으신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오니, 모쪼록 저를 빨리 일체법 알게 해주시고, 모쪼록 저를 빨리 지혜의 눈 얻게 하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모든 중생 구제하도록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반야의 배에 빨리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계율과 참선의 길을 얻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원적(열반)의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무위(해탈)의 집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법의 성품으로 이뤄진 몸(깨달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에게 열 가지 소원을 비는 것이 ‘〈천수경〉 행자’의 기도 내용인데, ‘10원(願)’이라고도 합니다.

어,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천수경〉을 외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각자 마음속에 품는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가족의 무탈함, 소박한 행복,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승진 등등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들을 이뤄달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수경〉에서 예시한 소망의 목록들이 어떤가요? 열 가지 이 소망은 하나같이 “나를 깨닫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아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품는 목적 즉 깨달음을 이루도록 관세음보살님께 도와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천수경〉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세속의 행복을 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속의 행복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깨지기 쉽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세속의 행복은 끝이 없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뤄져도 이내 ‘더, 더’를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쯤해서 세속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잠시 멈춰보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분명 다른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행복, 깨달음에 이르는 행복,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입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비는 소원은 바로 이런 행복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빨리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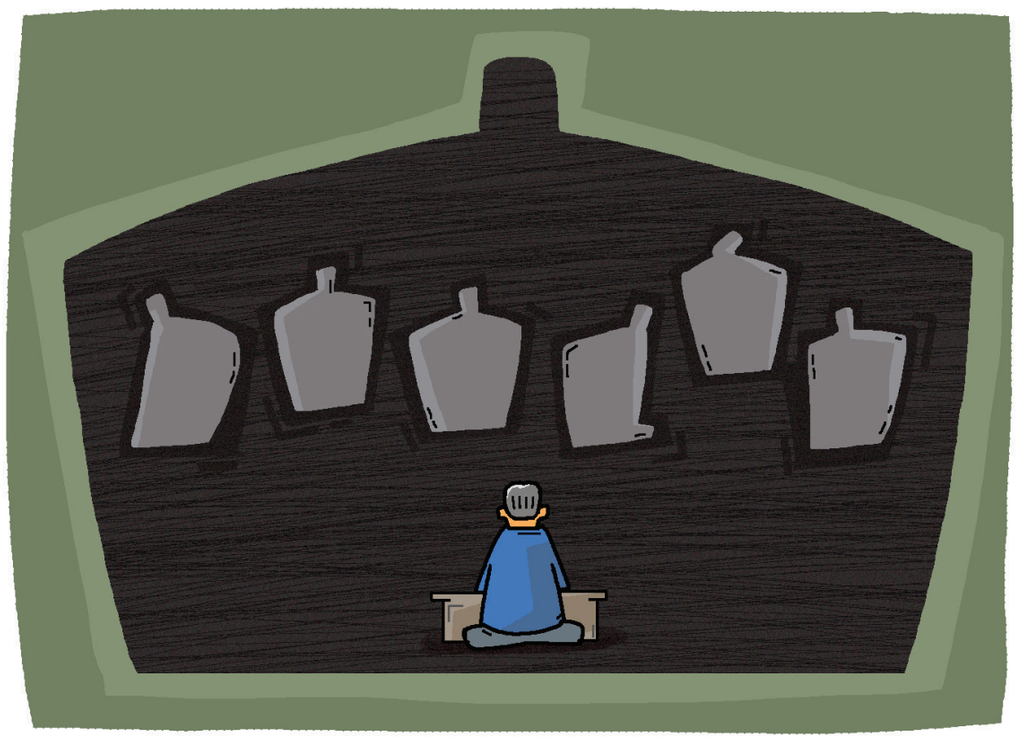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세음보살 바라는 10가지 소망
‘깨달아 法과 하나 되는 것’ 서원
깨달은 뒤 향하는 곳은 ‘지옥’
6개 지옥 가자 지옥이 소멸돼

내 가정과 내 가족의 행복을 빌려고 〈천수경〉을 외웠는데, 알고 보니 〈천수경〉에서는 그와는 다른 성격의 행복을 관세음보살님께 빌라고 쓰여 있었다는 사실! 〈천수경〉은 이런 행복을 비는 경임을 불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지옥 가겠습니다

〈천수경〉의 10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른바 6향(向)입니다. 여섯 곳으로 향해서 간다는 것으로, 〈천수경〉 한문문장을 음미해보기로 하지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절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我若向地獄 地獄自枯渴)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我若向我歸 我歸自飽滿)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
(我若向蓄生 自得大智慧)

평소 〈천수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무심코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로 향한다는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바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지극정성으로 깨닫게끔 도와달라고 빌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법성신과 하나가 된) ‘나’입니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도 무엇인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지요. 그게 바로 깨달은 내가 여섯 곳을 향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다는 여섯 곳이 하나같이 지독하게 무섭고 고생스러워서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장소, 이른바 지옥입니다. 산은 산인데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등이 죄다 예리한 칼날로 이뤄져 있어 닿기만 해도 내 온몸이 저며지는 도산(刀山)지옥,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서 악업 지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죽기 직전까지 푹 삶기는 화탕(火湯)지옥,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리지도 못하는 지옥, 죽은 뒤에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해서 늘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귀,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늘 싸우려 덤비는 수라, 어리석어서 싸움을 일삼는 축생, 바로 이 여섯 장소에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보면 내가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님께 대놓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천수경〉은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발원을 하는 경입니다. 물론 내 뒤에는 든든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버티고 계시니 쫄 일은 없습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뒤를 받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는 10원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었고, 어느 사이 내 자신이 불보살님처럼 세상을 향해 자비의 두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던 중생이 불보살이 되었거든요.

다섯 번째 이야기–내가 한 건 없어요

〈천수경〉을 읽을 때 짜릿해지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도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니 하는 곳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 여섯 지옥으로 향해 가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구제하려 애쓰겠습니까? 그들이 괴로운 과보를 받을 때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짬이 있으면 서둘러 그 틈을 타서 선업을 생각하고 바른 이치를 떠올리도록 안내할 것이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런 나를 향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덤벼들어도 나는 그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합니다. 오죽하면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러니 나는 그 지옥 중생의 거친 행동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천수경〉을 지송하는 불자 즉 ‘천수 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빌었고, 내 소망을 들어주셔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으면 나는 이제 지옥으로 향해서 그들을 향해, 관세음보살님이 내게 해주셨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장하지 않나요?

이런 내 모습, 불보살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해냈다는 것,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천수경〉의 6향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나의 허를 찌르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스스로’라는 뜻의 ‘자(自)’입니다.

내가 저들 지옥중생을 다 구제했지만, 나는 전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지옥이 없어졌네요. 아귀중생도 그냥 저절로 다 배불리 먹게 되었네요.”

‘나’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구제했다’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空)한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진 일이니 그건 그냥 저절로 되어갔을 뿐이라는 것. 도대체 〈천수경〉은 우리들 불자의 수준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경인지, 나는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저릿해집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